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00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7.

발 의 자 : 오기형 · 이기현 · 박홍배
임광현 · 허성무 · 김우영
황명선 · 조계원 · 한민수
김남근 · 천준호 · 김영배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.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.

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,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.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,354억 원,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.

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,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(안 제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전단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60과 100분의 4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) ① (생 략)	제9조(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(區)분 재산세는 각각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<u>100분의 50</u> 을 그 세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60과 100</u> <u>분의 40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